

■ 천재들의 비밀, 뉴턴과 아인슈타인 홍성욱

• 뉴턴 혹은 코페르쿠스부터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현대 자연과학이 인간에게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함의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연과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지극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지적활동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적 활동이 반드시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며 삶의 지표를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은 인류가 발견해온 매우 중요한 지적 유산으로서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코페르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등의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다시 풀어내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또 검증하기를 반복해 다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 이론을 다시 뒤집고 발전시키면서 지식이 축적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인류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의식과 인간본성 [꿈의 해석] 김석

• 서구지성사의 3대 혁명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1543년),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혁명(종의 기원),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혁명(꿈의 해석)

• 인간은 항상 꿈꾸는 존재, 환상을 품는 존재이지만 망상이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환상과 망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환상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망상은 과도한 신경증자나 도착증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꿈꾸는 존재여야 하지만 동시에 이 꿈이 망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결국 정신분석은 진정한 나를 찾는 일입니다. 실제로 무의식은 자신을 안정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우리가 평소 품고 있는 생각의 정서적인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또한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실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늘 욕망에 시달리며 갈등하고 좌절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 이성의 열쇠로 풀어본 세계 [성찰] 이석재

• 뉴턴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과학에 근거한 세계관(결정론적 세계관)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세계관 사이의 충돌은 서양 근대철학자들만의 고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이 과연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 양립가능한지 등의 의문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데카르트는 기존의 학문, 특히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설명력이 떨어지고 모호한 개념이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학문을 흔들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이른바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생각들을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는 깨끗한 출발점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 우리가 감각을 통해 얻는 경험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늘 믿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감각은 세상과 동떨어져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확실한 앎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므로 감각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데카르트는 꿈의 논증과 같은 철학적인 장치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결론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의 도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있다면 이러한 지식은 꿈의 논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데카르트가 예로 생각하고 있는 지식은 수학적 진리들입니다. 수학적 참들은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꿈의 논증을 가지고는 이들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수학적 진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에 대한 의심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수학적 진리들마저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이 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령의 가설’입니다.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